

투데이 칼럼

주한미군 주둔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일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공통의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 측에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내라고 했다. 현재는 1조 정도 내고 있는데 한방에 예로 분담금을 더 내라는 논리는 한국이 부유하기 때문이란단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에서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았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상상조차 끔찍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을 만나 "인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의도적인지 혹은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 소식을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대단한 일이다. 미국의 압력에는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고, 공은 절묘하게 일본으로 넘긴 것이다. 몇몇 의원들과 조선일보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



박보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주한미군주둔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고 만약 철수를 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 정답은 미국이다. 앞으로 100년간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 경제력, 주변국, 자원, 기술, 식량의 자급 자족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이다. 하지만 신흥강국으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은 나올 수 있다. 과거에 소련이 그러했고 지금은 중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금융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GDP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 북경까지 거리는 약 800킬로 수준이다. 중국의 대외 군사전략에 해당하는 도련선을 무시하고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한국이고 주한미군이다. 중국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에서 감지하는데 15분 일본에서 감지하는데 7분 한국에서 감지하는데 7초가 걸린다. 사드덕분이다. 이걸 한일 지소미아 때문에 다 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담대일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빈대 잡는다고 건물을 불태우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대단

한 안보에 구멍이 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준다. 100% 거짓말이다. 하태경과 몇몇 정치인들도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데 역시 거짓이다. 미국이 사드를 북한 때문에 설치했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들는 사람들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 미국의 대부분의 정책과 전략은 대부분 중국을 견제하고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한일관계를 재편하고 나아가 한미관계도 일정부문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일본 또한 여기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외교 정책과는 비교불가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과의 화해를 강요하고, 지소미아 연장, 일분불매운동 폐지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설

전북형 일자리로 인구 감소 막아야

전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기대를 갖게 하는 반가운 일이었다. 전북형 일자리를 추진해나오다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저번에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반짝 보도가 있었지만 전국 평균 비교 현실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우울한 현실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게 팩트 이니까 말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려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태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실업 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가 활발해야겠다. 군산의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움직임이 어제 활발하지 않아보여 미덥지 않다.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미래 청사진만 보여줄 뿐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어 올

려 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비교적 괜찮다는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관한 것이 아니다.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과 남원 등 여러 곳에서 실업자가 많다. 도민들은 실업률 증가 때문에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은 약간의 성과를 내는 정도에서는 안된다. 전북도가 말한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발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야겠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북도는 획기적인 방안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신규 사업들 힘찬 추진 있어야

신규 사업에도 힘찬 추진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역 발전이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도의 관계자들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은 경쟁의 소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신규사업들도 도민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다. 그게 사실이 좀 지난 것들이라 해도 그렇다.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발전 계획을 다듬고 있는 게 보기가 좋았던 것이다. 전북도는 총 370건 6천690억원 규모의 일거리를 찾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도 역대 전임정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액된 국비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신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당위성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당위성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국비 확보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매년 순조롭지 않았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오라기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뒤처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계속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지금 요망된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전북도는 SOC 확충에도 힘내야 한다. SOC 확충이야 지역 발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까닭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최후의 보루' 홍콩이공대에 남은 시위대



한 시위대가 19일 홍콩이공대 체육관에 마련된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이탈과 탈출 시도로 소수만 홍콩이공대 교정에 남아 경찰과 최충전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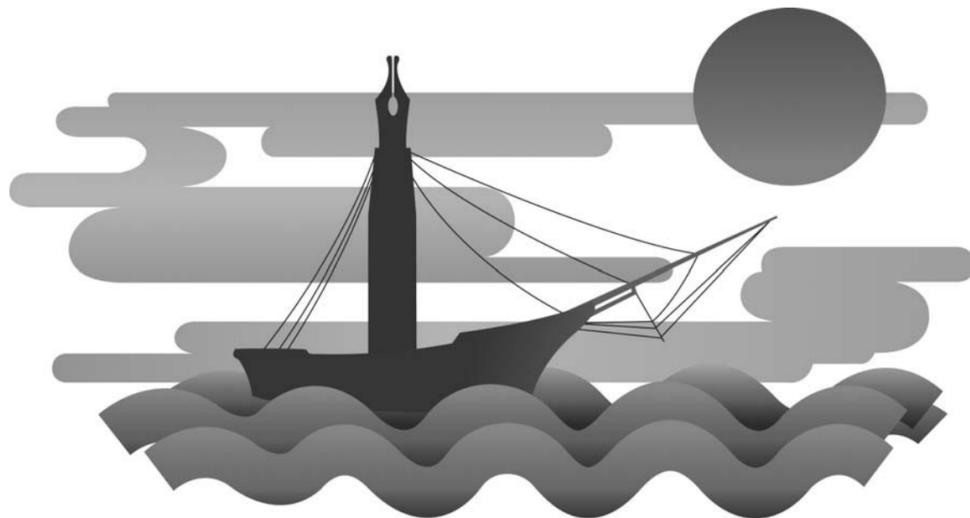
통학버스 기다리는 홍콩 학생들



홍콩 시위로 휴교에 들어갔던 각급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하면서 20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등교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